사무실

사무원1: 퇴근 안 하십니까?

사무원2: 전 아직 일이 좀 남았는데, 먼저 가십시오.

사무원1: 중요한 게 아니면 같이 나갑시다.

사무원2: 이건 회의에 낼 보고서인데, 오늘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무원1: 그래요? 제가 도와 드릴 일은 없습니까?

사무원2: 괜찮습니다.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새 단어:

퇴근하다 –ажил тарах

먼저 –эхлээд

중요하다 –чухал

회의 –хурал

보고서 –илтгэл

<2>

공무원이 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정신없어 바쁩니다. 그렇지만 일은 재미있습니다.

이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을 할 때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황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퇴근길에 동료들과 한잔합니다.

새 단어:

공무원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ангч

직장 –Ажлын байр

정신없이 –ухаангүй

물론 –мэдээж

피곤하다 –ядрах

계획 –төлөвлөгөө

갑자기 –гэнэт

문제 –асуудал

당황 –сандрах

동료 –хамт ажилладаг хүн

**병 – Өвчин**

바트: 감기약 좀 주세요.

약사: 증세가 어떠세요?

바트: 며칠 잠이 오지 않아서 못 잤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열이 나는데다가 목도 아파요.

약사: 독감이군요. 요즘 감기가 유행입니다.

이걸 식후에 한 봉지씩 잡숴 보세요.

바트: 며칠 분입니까?

약사: 이틀 분이에요. 과로하지 말고 쉬세요.

새 단어:

감기약 –ханиадны эм

증세 –өвчний шинж тэмдэг

잠이 오다 –нойр хүрэх

열이 나다 –халуурах

목이 아프다 –хоолой өвдөх

독감 –томуу, хүнд ханиад

유행 –сүүлийн үеийн загвар, моод

식후 –хоолны дараа

봉지씩 –цаасан уут, гялгар уут

이틀 –2 хоног

과로하다 –хэт их ажиллах

우리는 날마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많은 약 광고를 보고 듣습니다. “콧물 감기에는 000” “머리가 아플 땐 000 약” “아기 설사에는 00 시럽” “신경통이라고요? 00를 잡수셔야지요”

이렇게 약 광고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약을 많이 먹습니다. 나만큼 약을 많이 먹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또 소화제 같은 것은 늘 가지고 다닙니다. 안 가지고 다니면 불안합니다. 아플 땐 “그냥 참으면 큰 병이 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약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 단어:

광고 – зар,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

생각하다 –бодох

약국 –эмийн сан

설사 –гэдэс суулгалт

소화제 –хоол боловсруулах бэлдмэл

늘 –байнга, ямагт

불안하다 –түгшүүр, амар тайван бус, зовиур

그냥 –зүгээр л

걱정하다 –санаа зовох

습관 –дадал, зуршил